

한우

전국한우경진대회 16년 만에 개최

전국의 최고 씨암소를 선발하는 ‘전국한우경진대회’가 16년 만에 부활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전국한우협회는 한우농가의 개량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2012 전국한우경진대회’를 지난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농협 안성 팜랜드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는 그동안 1969년부터 1996년까지 격년제로 개최돼 왔으나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중단되었다가 16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번 전국한우경진대회에는 생축(살아 있는 암소 평가) 분야와 거세수소의 육질을 평가하는 도체 분야로 나눠 전국 8도를 대표하는 200여 개 농가와 소 350여 마리가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 2개월 동안 8도에서는 예선전 성격의 자체 행사를 개최했고 도 대회에서 3위 안에 입상한 소들이 도를 대표해 전국대회에 출전했다.

이번 행사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양주 소놀이곳 공연을 시작으로 개막해 이를 동안 대회에 참여한 소들에 대한 외모심사가 진행되었다. 또 대회 기간 안성 팜랜드에서는 대회에 참가한 소들의 경매 행사, 한우 반값 판매 및 로데오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열렸다.

특히 대회에 출품된 암소 경매행사에는 전국 각지

바이어들이 참여하며 산지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에 낙찰되기도 했다.

오정규 농식품부 제2차관은 “산지 한우 가격이 하락하고, 사료 가격이 상승하는 등 한우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외국산 쇠고기와 한우가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한우농가의 자신감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돈

한돈 농가, 독도의 날 독도경비대 한돈 1톤 후원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한돈농가들이 독도경비대 등에 한돈 1톤을 후원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한돈 농가들이 독도경비대 등에 한돈 1톤을 후원하고 1년 365일 독도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관계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국산돼지 한돈의 소비촉진단체 한돈자조금관



리위원회(위원장 이병모)와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
의 한돈 1톤 후원은 최근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
장하며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
고 엄포를 놓은 가운데 최일선에서 독도를 지키고
있는 독도경비대, 울릉경비대를 비롯해 독도의용
수비대, 상이군경울릉특별지회 등을 위로하고 힘
을 북돋기 위해 준비되었다.

또한 이번 후원은 지난 2008년에 이은 두 번째 후
원으로 최근 한돈 농가들이 돈가 폭락으로 어려움
을 겪으면서도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같이 어려운
상황인 독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
되어 더욱 뜻 깊었다.

한돈자조금 이병모 위원장은 “국내 한돈농가들이
돈가 폭락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 독도를 보며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
끼게 됐다”면서 “독도와 한돈 농가 모두 지금의 어
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면 좋은날이 올 것”이라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뉴스웨이브 김시현 기자 2012. 10. 25



다. 지난 8월 공고기간을 거쳐 지난 9월 3일부터
14일까지 양계 사진을 공모한 결과, 115작품이 접
수되어 9월 20일 토종닭 협회 회의실에서 출품작
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토종닭 협회는 “이번 공
모전에서 입상한 작품들을 국내 양계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자료로 심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양계사진공모전은 닭고기자조금으로 진행된 사업
으로 대상에 김재득 씨의 ‘친근한 닭’(상장 및 상금
150만원)을 선정했다. 우수상에 김정만 씨의 ‘날아
오르다’, 신운섭씨의 ‘어미닭의 모성’(상장 및 상금
50만원)을, 장려상에 전태만 씨의 ‘자연과 함께’ 이
미숙 씨의 ‘탄생의 순간’ 최영득 씨의 ‘혼신을 다해
서’(상장 및 상금 30만원)가 선정됐다. 입선작은 김
영복 씨의 ‘깜짝이야’ 등 30점이 뽑혔다.

시상식은 지난 10월 17일 개막한 「2012 대한민
국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에서 진행되었다. 한
편, 이날 토종닭협회는 토종닭 ‘한닭’의 우수성
을 홍보하기 위해 토종닭 홍보관을 마련하여 토종
병아리와 양계사진 공모전 수상작품과 토종닭 관
련 제품 등을 전시했고 토종닭 훈제 시식행사도 가
졌다.



제2회 양계사진공모전 대상에 ‘친근한 닭’ 뽑혀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에서 시상
식과 전시회 개최

제2회 양계사진공모전이 많은 관심 속에 종료되었

낙농

전국 낙농가의 숙원, '낙농정책연구소' 닷 올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 현판식 개최로 첫 발 내디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0월 23일 축산회관에서 2012년도 제3회 이사회 및 낙농정책연구소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낙농정책연구소 관련 제규정제·개정안을 의결하고 초대 연구소장으로 조석진 영남대 명예교수를 만장일치로 선임하였다. 조석진 신임 연구소장은 “석사 과정, 박사 과정, 33년간의 교수생활을 낙농연구에 몰두해 왔고 올해 정년을 했지만 제도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학자로서 깊은 아쉬움을 갖고 있다”면서, “낙농문제는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낙농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소명대로 대한민국 낙농발전을 위해 내 남은 열정을 바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사회 직후 낙농정책연구소 현판식이 개최되었으며, 2006년 한국낙농육우협회 제2회 이사회(5.15)에서 설립추진을 의결한 이래 6년 만에 전국 낙농가의 숙원과제가 결실을 맺게 되었다. 그동안 전국 순회 낙농인 대토론회에서 협회주도의 선제적 정책개발을 위해 낙농정책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이 전국 낙농가로부터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낙농육우산업 대선 요구사항 5대 핵심과제로 △제도개편을 통한 전국단위

우유수급 안정, △FTA에 따른 낙농가 보호대책 강구, △단체우유급식 제도화를 통한 낙농산업 기반 유지, △육우가격 안정화 대책, △북한 어린이 우유지원 제도화를 채택하고, 각 당 대선후보 전달 활동, 신정부 인수위 출범 시 활동을 전개키로 하였다.

또한 전국순회 낙농인 대토론회를 오는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전국 9개 도시에서 개최키로 하고 세부일정 및 장소는 도지회와 협의하여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봉

제38회 전국 양봉인의 날 행사 개최

한국양봉협회(회장 조균환)가 주최하고 농림수산물부, 농촌진흥청, 강원도, 속초시, 농협중앙회, 한국양봉학회, 한국양봉농협이 후원한 2012 벌꿀 축제, 제38차 양봉인의 날 행사가 지난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속초시 강원도국제관광정보센터에서 열렸다.

양봉산업의 위상제고, 친환경 이미지 정착, 양봉농



가의 사기진작 및 화합과 어울림의 장을 목적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국 양봉농가 5천여 명 및 양봉관련자, 속초시민 등 6천여 명이 참관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을 비롯해 양봉인의 밤(전야제), 양봉인 노래자랑,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양봉산업 발전 국제 심포지움에서는 우건석 서울대 명예교수의 '아시아 지역의 약용 밀원자원의 재평가, 다양성 및 이용', 김세현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원의 '한국밀원식물의 발굴과 전망', 이용립 비엔케이 대표의 '프로폴리스 부산물을 이용한 가축 및 양어용 천연항생제 개발', 한상미 농촌진흥청 연구원의 '봉독의 해외수출 현황 및 양봉산물 수출 전략', 이진태 대구한의대 교수의 '한반도의 기능적, 천연성형자원의 발달'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현장의 양봉인과 학계와의 토론회를 통한 현장 중심적 연구 과제를 도출하는 시간이 마련돼 양봉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부대행사로 벌꿀 홍보관, 양봉산물 전시 및 체험, 양봉 기자재 전시, 벌꿀 시식 등이 마련돼 참석자들이 양봉을 배우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개회식에서는 양봉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회원농가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진행됐다. 표창식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표창에 선정된 한국양봉협회 경상북도지회 박용욱 지회장, 강원도지회 속초시지부 최도수 회원, 경기도지회 의왕시시부 조상우 회원, 한국양봉농협 김삼수 본부장이 표창패와 부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강원도지사 표창 2명, 속초시장 표창 4명, 농협중앙회장 표창 3명, 양봉협회장 감사패 13명 및 표창패 11명, 장학상 6명 등에 대한 시상식이 이어졌다.

개회식에서 조균환 한국양봉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국 양봉인들의 축제와 화합 및 미래에 대한 비전공유의 장이 될 제38차 양봉인의 날 행사는 전국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자연친화적 벌꿀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친환경 양봉 이미지 정착과 대한민국 양봉 농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고품질 양봉산물 생산에 전념하고 있는 전국의 양봉인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양봉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